

300-3-095. 신문조서(姜達永 외 47명 치안유지법 위반) 8-1

■ 姜達永 외 47명의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신문조서 내용 수록

- 活動 內容은 조선공산당 再興活動이다. 1925년 4월 京城에서 조선사회주의운동자 수뇌 등에 의해 조직된 조선공산당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민, 청년, 학생, 여성, 기타 여러 명칭의 단체를 지도하며 활약하던 중 11월 당의 통신연락소인 新義州 獨孤侏의 집에서 비밀통신문건이 발각되어 당 중앙간부가 검거 또는 잠복하여 활동에 차질을 초래했으나, 잠복자가 당 부흥 시도를 위하여 人物을 규합, 1926년 2월경부터 밀회 하여 姜達永 등이 조선공산당 부흥을 위해 활동 중 國際共產黨의 認定을 받아 운동자금을 받았고, 조직을 확대하여 조선독립 절규를 기회로 공산혁명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 조선 赤化촉진 활동을 위한 선전계획 비밀문서 등을 姜達永 등이 은폐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 朴純秉의 피의자 신문조사는 1926년 7월 17일에 치안유지법 위반부터 시작되었고, 姜達永·李鳳洙는 7월 19일, 全政瑄(全德)은 19일에 1, 2, 3회 신문조사가 있었다. 全紘哲은 7월 19일, 姜達永 2회 신문조사는 20일, 李鳳洙 2회는 7월 20일, 全政瑄 4·5회는 20일, 7·8회는 7월 21일에 있었다.
- 金東富는 7월 21일, 金昌俊·李忠模·具昌會·李殷植·柳淵和·朴一秉·裴成龍·金瑛禧·李承燁 등은 7월 23일에 1회 피의자 신문조사가 있었고, 2회 피의자 신문조사는, 朴一秉은 7월 24일에, 朴泰美·蔡奎恒·朱世竹·白基浩는 7월 24일 에 있었다. 金有聲·南洪·裴致文은 25일에 신문조사하였다. 李敏行·曹俊基·金正奎는 26일, 李準泰는 27일·28일에 2회 신문조사를 했다. 趙鏞周·朴純秉은 28일, 姜達永은 29일에 5회, 30일에 6회 신문조사가 진행되었다.
- 李準泰의 4회 신문조사는 7월 31일, 朴台弘·蔡奎恒·朴泰善·白基浩·金有聲·裴致文·金瑛禧·南海龍·愼杓晟·曹俊基·李敏行的 신문조사는 7월 31일에 실시되었다. 趙鏞周 2회 피의자 신문조사는 7월 31일, 姜達永의 7회 신문조사는 7월 31일에 있었다. 李相薰은 7월 31일에 조사가 있었고, 姜達永 8회 피의자 신문조사는 8월 1일에 있었다.
- 증인 신문조사는 金溶珠·薛炳浩에게 8월 1일에 실시되었고, 李鳳洙의 4회 신문조사는 8월 1일, 金淙昱은 8월 1일에 있었고, 姜達永 9회 신문조사는 8월 2일 실시되었다. 金鉉台 2회, 金政瑄 9회, 金東富·金演義·魚季甲 2회, 李忠模 2회, 李在益·金昌煥 2회, 金世淵의 신문조사는 8월 2일에 실시되었다.